

3부 요한복음: 예수님의 위로: 너희는 분명히 천국에 간다

성경말씀: 요13:31-14:14

요한복음 총 21장, 1-12장은 그분의 공생애 사역(3년 반), 13-21장은 약 4-50일

13-17장은 십자가 처형 12-15시간 전의 일을 기록함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함: 경쟁심, 교만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겨 주심, 내가 주와 선생인데도 이렇게 본보기를 보인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섬김이다(막10:44-45).

예수님의 새 명령(31-35)

만찬 뒤에 가롯 유다가 나가자 주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급진적인 말씀을 하신다.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난다(33). 십자가 처형, 죽음, 매장,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31-32).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들을 마치는 것(요17:4).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완수하는 것,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러면 이번에는 아버지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33): 이미 두 차례 말씀하심(7:33-36; 8:21-24).

어디로 가시는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14:2)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34): 이제 내가 없으므로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

심지어 베드로도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도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

13-21장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40회 이상

새 명령의 '새':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다. 구약 시대에도 사랑해야 함

경험적으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가능하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구현되면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

믿는 자들끼리 사랑해야 우리가 그분의 제자들이 된다.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된다. 신사답게 행동해야 한다.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 구원, 성화의 삶, 우리의 본보기 예수님처럼 섬긴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베드로가 다시 나섭니다(36-38)

베드로의 질문, 주님의 대답(36):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꾸짖지 않으신다.

무언가 복선이 깔려 있다.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온다.

베드로: 십자가 처형, 천국으로 감

베드로의 질문, 결의(37)

예수님의 확인(38)

제자들의 반응: 베드로는 망연자실(멍하니 정신을 잃음).

다른 제자들: 가장 용감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제자들의 근심

왕국의 도래를 위해 3년 반을 따라 다님, 수많은 기적을 봄, 왕국의 신비에 대한 말씀들을 들음
이렇게 하면서 3년 반이 지남, 그런데 3년쯤 지나면서부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함(마

16:21). 곳곳에서 그분을 죽이려는 시도가 본격화 됨

이번 유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드는데 이번에는 왕으로 나서실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그런데 이 왕은 한 알의 밀알로 죽어야 한다.

그리고는 주의 만찬, 섬기는 모습, 본보기를 주고 간다. 혼동

제자들의 근심: 1. 너희 중 하나가 그분을 배반한다. 2. 베드로에게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3. 내가 너희를 떠난다(13:33).

우리가 이들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이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몇 가지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 <너희는 분명히 천국에 간다>,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으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것이 너희의 특권이다.

<너희는 분명히 천국에 간다>(1-6)

제자들의 근심, 주님의 말씀(1).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너희는 분명히 천국에 간다>

천국은 실제 장소이다(2). 왕국(벧후1:11), 상속 유업(벧전1:4), 나라(히11:16), 도시(11:16) 아버지(Father) 요한복음 114회, 13-17장 약 50회

천국은 내 아버지 집(14:2), 무슨 의미: 우리가 가면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곳, 환영받는 곳 거기에는 거할 곳이 많다. mansion, 아버지 집에 딸려 있는 방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일 것이다(2-3).

유대인 결혼 풍습: 먼저 정혼을 하고 결혼 언약을 맺고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마련한 뒤 신부를 데리러 온다. 내가 바로 그렇게 할 것이다. 교회는 나의 신부이다. 반드시 2번 오신다.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다(14:3).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고서 천국에 가며 어떤 사람들은 맛보지 않고 간다(요11:25-26). 순식간에 몸이 변화된다(살전4:13-18). 휴거라고 부른다.

7년 환난기 전에 이루어진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 천국을 예수님은 약 60년 뒤 요한에게 보여 주셨다. 그 내용이 계21-22장에 나온다. 이곳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새 예루살렘이다. 가장 큰 특징: 없는 것, 눈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계21:4-5)

주님의 말씀(4), 도마의 대답(5)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처음에 인정하지 않았으나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11:16)

늘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하는 사람, 그래서 알기를 원하였다.

주님의 논리: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다(행4:12).

예수님의 말씀: “내가 그 길을 알려준다. 가리킨다.” 아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그 길(the way)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행9:2; 19:9, 23 등)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19:9) 바로 그때에 그 길에 대하여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니라(19:23).

종교 행위, 종교 창시자, 선행, 전통, 집안, 아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너희는 분명히 천국에 간다. 나를 통해서

그 당시 마음에 근심하던 제자들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

우리는 어떤가?

요즘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다. 요즘 세상을 심장병 시대라고 한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시기(부동산 폭등, 범죄, 악한 일들 합법화), 근심거리가 워낙 많아서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것이 붕괴되고 있다.

좌익 독재 세력의 활성화, 자유가 강탈되고 있다. 경제 폭망,

미국의 부정 선거 문제, 미국마저도. CNN 등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언론들의 횡포 정말로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제자들처럼 염려가 된다. 근심이 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1).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주님의 말씀(1). 너희는 분명히 천국에 간다.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온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히12:2)

우리는 지금 아버지를 안다(7-11)

예수님의 추가 설명(7)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빌립의 등장(8), 요1:43-45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난다. 3년 반을 따라다닌다.

그리고 질문을 한다. “아버지를 조금 더 잘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9)

추가 설명(10-11): 내 딸들, 내 일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보여 준다.

근심을 벗어나게 하는 또 다른 요인: 아버지를 아는 것

질문: 우리는 아버지를 알고 있는가? 아니면 천국에 가야만 알 수 있는가?

영생은 무엇인가(요17:3)?

주님의 말씀: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아버지를 알고 있고 어려운 때에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요한복음에는 안다는 말이 약 140회 정도 사용됨

요한복음에 나오는 ‘안다’는 말의 3단계

1. 말 그대로 사실을 안다. 내 생일을 안다. 이름을 안다.

2. 어떤 사실 뒤에 있는 진리 혹은 원리를 안다.

3. 서로 사귀는 관계: 어떤 존재를 믿고 관계를 맺는다(요17:3). 창4:1, 부부 간의 관계

지금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

아버지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고 믿고 사랑한다(벧전1:8).

이 아버지가 바로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

불변하는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 유일한 분, 우주보다 크신 분

우리가 이 아버지를 정확히 알면 근심이 물러간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12-15).

제자들 지금 근심하고 있다. 주님의 말씀(1).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신다. 기도 방법을 명시해 주심. 근심을 떨라고.

1. 믿음으로 기도하라(12). 주님의 말씀: 더 큰 일도 한다.

1차적으로 사도들에게 주어진 말씀(히2:3-4), 주님의 기적보다 더 낫거나 위대한 것은 아니다.

제자(종)가 스승(주인)보다 나올 수 없으므로(13:16)

그러나 구원 사역의 양과 범위가 훨씬 더 컸다. 베드로의 경우 설교 한 번 3000명 회개, 구원
지금 우리의 사역: 온 세상으로 퍼진다.

성도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원하는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은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12).

2.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13-1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이면 마술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을 간구한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

아빠 이름으로 그 일을 해라. 큰 특권을 부여하는 것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내 이름을 빌려줄게. 아버지께 기도하라.

무엇을 구하든지(13, 14), 기도할 조건이 이미 명시되어 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는다. 성경을 읽는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것을 기도하기 원하는가

보기 위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구해야 한다.

그분의 뜻 안에서 기도한다(요일5:14-15). 그것을 알 수 있는 길, 성경 말씀

그래서 장신대 나채운 박사, <우리말 성경 연구>, 100독 1도

기도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다.

결론:

우리도 제자들처럼 근심 가운데 있다. 정신이 있으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1.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어라.
2. 너희는 분명히 천국에 간다. 휴거된다.
3. 너희는 아버지를 알고 있다. 창조자
4. 너희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내 이름을 빌려줄 테니 기도하라.